

정부 · 기관소식

농림수산물부

대형 유통업체, FTA발효 농수산물 판매가격 조기 인하키로

3. 23일 농식품부와 대형유통업체(4개사) 임원 간담회서 협의

농림수산물부와 대형유통업체 4개사에서는 3월 23일 농식품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5일 시작된 한·미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농수산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오정규 제2차관과 관련 간부가 참여하고, 업계에서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유통 등 4개사 임원이 참여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식품의 가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FTA발효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품목에 대하여 세율 인하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적기에 인하
- ② 산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산지조직과의 계약재배 등 협력 강화

아울러, 앞으로 농식품부와 유통업계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정 및 유통 현안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인력보강 및 조직 개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방사능검사 및 질병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물 안전성 및 동물약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 3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인력 6명(연구관 2, 연구사 4)을 증원하여 축산물 및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며, 현재 질병진단과와 조류질병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류질병의 진단 및 방역업무를 조류질병과로 일원화 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조류질병에 대한 방역기능을 강화하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독성화학과를 축산물안전부로, 동물약품평가과를 동물방역부로 이관하여 관련 업무를 같은 부에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검역검사본부 산하 6개 지역 “검역검사소”는 1개 이상 광역시 또는 도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이에 걸맞게 “지역본부”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 할 경우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시 시·도 등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방역조치는 물론 일선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농촌진흥청

시대가 바뀌면 가축사양 표준도 바뀐다.

농진청,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을 대학, 산업체, 관련 협회 등과 공동으로 2차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가축에게 사료를 먹일 때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현재 상태에 알맞은 영양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국가적 사양관리 지침이다. 미국은 1940년대, 영국과 일본은 1960년대 제정해 지금까지 사양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2002년 한우, 젓소, 돼지, 가금 사양표준이 제정됐으며, 2007년 1차 개정을 한 바 있다.

그 동안 생명공학, 가축개량, 사료 종류의 다변화, 사료가치 평가기술이 발전하고 항생제 사용금지, 기후 온난화 등 가축사육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2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2차 개정은 올해 12월 개정판 출간하고자 한우, 젓소, 돼지, 가금 4개 축종과 표준사료성분표도 포함하여 5개 분과로 나눠 추진한다. 3월 30일 출정식을 겸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5년동안 적

용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한국형 가축사양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로 이미 분과별 관련 산·학·관·연의 가축영양 사양분야 전문가 30여 명씩이 참여해 개정위원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 농산부산물 등을 이용해 최소비용의 자가배합 사료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변경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사료급여 프로그램이 보급된 지난 10년간 국내 가축사양 기술은 많이 발전했다. 또한 사료비 절감,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성과는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의 보급 확대와 고급육 생산을 증가에서도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가축사양표준은 대학에서는 교육교재로, 연구에서는 결과 성과 비교기준으로, 산업계에서는 경제성과 영양균형 갖춘 사료 설계기준으로, 농가는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양관리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앞으로 한국가축사양표준에서 제시하는 영양소 섭취량은 경제적 가축 사료급여 기준 뿐 아니라 가축 분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므로 환경 규제 관련 국제협약에 맞춘 국내 표준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양표준개정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관원, 농식품 안전 서비스 대폭 강화 소비자 중심업무로 역할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안전 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공감·신뢰를 주기 위해 이달부터 대도시 사무소의 업무 기능을 소비자 지향으로 재편, 농식품 안심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부산·인천·울산 등 4개 대도시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가방문 친환경인증 등 생산자 관련 업무를 민간이양 또는 인근 사무소로 이관하고, 대신 소비자 중심업무로 역할이 확대됐다. 생산자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인력을 원산지표시단속, 친환경·GAP인증품 사후관리, 쇠고기 이력관리, 학교급식 등 유통·판매단계 안전성 조사와 같은 소비자 중심업무에 역점을 뒀다.

또 소비자 지향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무소 조직을 '유통전담팀'으로 재편하고 인력 증원 배치와 함께 원산지 기동단속반(특사경)도 대폭 확대됐다. '유통전담팀'을 29명에서 36명으로 늘리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원산지 기동단속반 특별사법경찰관도 19명에서 36명으로 확대됐다.

소비자의 참여 활성화와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전성 관리, 원산지 조사, 소비자 교육, 홍보 등의 상호 협력체제가 강화됐다. 정기적으로 '(가칭)농식품 안전 협의회'를 개최, 농식품의 안전·품질관리를 포함하는 지역단위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활동성이 강한 소비자단체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확대 위촉, 농식품 부정유통을 차단해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과학원

제비-까치 등 32종, AI 전파 위험성 높은

조류로 선정

환경과학원,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 발간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성이 높은 야생조류 63종을 선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야생조류의 특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AI 주의 야생조류 63종의 종별 특성, 식별요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감염사례, 생태, 주의사항, 위험도, 서식 지도 등을 담고 있다.

오리과는 청둥오리, 원앙, 쇠기러기, 큰고니 등 19종, 매과는 황조롱이와 매, 까마귀과는 까치와 까마귀 등 7종의 위험성 높은 주의종을 포함했다.

특히 인가와 농경지에 자주 출몰해 야생조류와 가축, 사람 간의 AI 감염과 전파매개 가능성이 높은 청둥오리, 쇠기러기, 제비, 까치 등 32종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조류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와 관찰용 사진을 곁들여 누구나 야생조류를 쉽게 식별하고 AI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AI 주의종을 잘 알고 바르게 대처하면 AI 예방과 야생조류 보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책은 AI 관련기관과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며 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사업 능동적 추진...질병 조기 검색 기여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으로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전화예찰·시료채취·농장방역실태점검사업 등 가축위생·방역·검역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질병 조기 검색 및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신속한 초동대응조치를 위하여 지난해 216천여 호 1,735천여 두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장방역실태점검을 501천여 호 실시하여 질병으로 의심되는 4,391건의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와 함께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30건이 질병 감염축으로 확인되어 질병검색률이 25.7%로 나타났으며, 검색된 질병 중 242건이 구제역 등 법정가축전염병 감염축으로 밝혀졌다.

※ 검색된 법정가축전염병 : 총 242건(1종 12건, 2종 139, 3종 91)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화예찰사업은 10개월간 총 9,340천여 호의 예찰을 통해 14.2천여 건의 의심축 임상증상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지역 담당 방역사가 전화예찰 및 농장을 방문하고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HPAI 등 법정전염병 176건과 기타 888건 등 총 1,064건의 질병을 검색하였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축검사사업은 총 11,692천여 두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는 전년대비 41.2% 증가한 총 1,063천여 톤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3.3천여 건의 이상보고가 있었으며, 그 중 767건이 불합격되어 위해수입축산물의 국내 유입 사전차단 및 국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역활동의 신속성 확보와 악성가축전염

병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의 효과적인 방역대 설치를 위하여 추진한 농장정보 및 위치정보 DB 구축사업은 방역사의 농장 방문점검 및 전화예찰요원의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여 팜스(FAHMS,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농가정보 DB를 현행화시켰다. ※ 2011. 12월말 현재 팜스 등록농가 : 188,7천호

축사환경개선지원사업·도축결과 농가정보제공 서비스 등 고객감동을 실현함으로써 '1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냉장·냉동식품, 중국 수출 늘린다” aT, 중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의 냉장·냉동식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aT는 지난 3월 1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냉장·냉동식품 중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했다. 중국바이어로는 TESCO, JUSCO 등 19개 중국 수입업체 및 대형유통업체가 초청됐으며, 국내에서는 사조대림, 천일식품 등 30여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냉장면, 냉동수산물, 음료 등 다양한 냉장·냉동식품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의 냉장·냉동식품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중국의 냉동식품 시장은 연 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161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수 aT 사장은 “중국 내 콜드체인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냉장·냉동식품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 가공식품들이 중국 1선, 2선 도시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 군납 축산물 품질보증 강화로 군 급식 향상에 기여

농협은 군납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군납조합 책임생산 감독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군납 가공장에 대한 자체 품질보증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납 축산물의 생산, 가공, 납품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자체 품질보증단을 2010년부터 설치하여 군납 축산물 책임생산 감독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품질보증단의 점검활동 이후 군의 식품검사 지적 건수는 2010년 대비 2011년 38.6% 감소하였고, 또한 2011년 군 합동 위생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건수는 0건으로 군 급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월 전라 지역, 3월 경기·경상지역을 시작으로 군납조합과 군납 가공장에 대한 품질 보증 점검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김홍원)는 향후 점검활동 강화를 위해 “축산물 군납 가공장을 등급별로 나누고 등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활동과 지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생산감독자

양성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군납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과 함께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38개 군납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합동위생점검을 진행중이며,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기준원 중부지원, 가공·유통분야 HACCP발전연구회 발족 위한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 원장 석희진)은 3월 29일 중부지원 교육장(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가공·유통분야 축산물HACCP발전연구회 발족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 및 충남·북 지역 가공·유통분야 HACCP를 지정받은 업체 중 26개업체(27명)가 참석하였으며, 기준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축산물HACCP제도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가공·유통 중부 HACCP발전연구회(가칭)” 발족을 위한 업종별 준비위원을 선출하였으며, 5월경에 준비위원 회의 후, 연구회 명칭과 운영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박민서 중부지원장은 “HACCP발전연구회 등을 통해, 가공·유통분야 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축산물HACCP제도의 발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